

# 3월 활동보고서



임수정

박찬수

채지원

권준성

RAONATTI 13<sup>th</sup> Philippines Pangasinan YMCA, 2015.03.05~2015.03.31

# CONTENTS

- MARCH SCHEDULE
- 활동지역
  - SALAPINGAO
  - PUGARO
  - DUMPSITE
- 우리활동
  - ENGLISH CLASS
  - TAGALOG CLASS
  - KOREAN CLASS
- 우리 생활
  - Cooking food
  - Zumba dance
  - Swimming activity
  - Month Thema
  - Atti tour
- 에세이

# MARCH 2015

SUN	MON	TUES	WED	TRU	FRI	SAT
<b>1</b>	<b>2</b>	<b>3</b>	<b>4</b>	<b>5</b> MANILA YMCA ARRIVE	<b>6</b> MANILA TOUR	<b>7</b> PANGASINAN YMCA ARRIVE WELCOME DINNER
<b>8</b> ATTI HOUSE MARKET	<b>9</b> CITY TOUR -CAPITOL -MALL	<b>10</b> ORIENTATION -YMCA -RAON -RULES	<b>11</b> SALAPINGAO	<b>12</b> DUMPSITE PUGARO	<b>13</b> PLANNING	<b>14</b> BONDING TIME
<b>15</b> REST DAY	<b>16</b> DUMPSITE ENGLISH CLASS	<b>17</b> DUMPSITE TAGALOG CLASS	<b>18</b> REST DAY	<b>19</b> SALAPINGAO ENGLISH CLASS	<b>20</b> PUGARO	<b>21</b> DUMPSITE KOREAN CLASS
<b>22</b> REST DAY	<b>23</b> DUMPSITE ENGLISH CLASS	<b>24</b> DUMPSITE TAGALOG CLASS	<b>25</b> REST DAY	<b>26</b> DUMPSITE	<b>27</b> PUGARO TAGALOG CLASS	<b>28</b> KOREAN CLASS MEETING
<b>29</b> REST DAY	<b>30</b> VISA EXTENTION	<b>31</b> PUGARO				



# 합동지역



## ACTIVITY SITE

# SALAPINGGAO 살라핑가오



살라핑가오는 이번에 새롭게 생긴 활동지로 Fish market 에서 보트를 타고 15분 정도 거리로 기존의 활동지인 푸가로와 근접해 있으며 푸가로와는 다르게 바다와 맞닿아있지 않고 강으로 이루어져있는 섬으로 땅이 푸가로에 비해서는 비옥해 보였다.

살라핑가오에 교육기관으로는 Daycarecenter, SALAPINGGAO Eelementary school, high school이 있다.

살라핑가오는 일주일에 두 번 목요일 토요일 방문해 활동하게 되었다.



ACTIVITY SITE


# SALAPINGAO



살라핑가오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활동으로는 SALAPINGAO ELEMENTARY SCHOOL에 Canteen을 (구내식당) 꾸며주는 것과 아띠클라세, 그리고 학교밖에 마을 공간에 그린하우스를 원했다.

3월 한 달을 지켜보며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고, 청년들과의 만남을 계획 중에 있다.





## 살라핑가오 - 개인소감



지난 한 달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살라핑가오와 다른 활동지 모두 첫 만남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보냈던 시간이었다라고 답을 하고싶다. 구체적이게 무엇을 시작하기보다는 그 곳에 대해 알아보고 궁금해하며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냈다. 거창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작던 크던 그 곳과 가까워짐이 필요할 것 같다.

회의를 할 때면 '살라핑가오' 라는 이름을 들을 때면 내가 그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 아직 그 지역에 단한명의 친구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더 의욕이 나지 않았던 곳이었다. 그러던 중 그 지역의 아이가 'JUAN'!! 이라고 불렀을 때 욕심이 나기 시작했다. 나도 그들을 알고 싶고 더욱 가까워지고 싶다고...







## 살라핑가오 - 개인소감



살라핑가오는 필리핀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가본 활동지였고, 살라핑가오도 새롭게 생긴 활동지로 라온아 띠를 처음으로 맞았다. 언제나 처럼 푸릇푸릇함이 가득했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생기로 가득 찼다. 많은 아이들의 다양한 관심 속에 수줍게 Magangda umaga를 외치며 살라핑가오 초등학교와 ymca직원인 꾸야 바비의 가족분들 집을 방문했고, 이곳의 환경이 너무나 좋아 보여 어떤 활동이 좋을지 고민되었다. 살라핑가오에서 원하는 활동이 아닌 청년들과의 만남을 계획하며, 내가 꿈꾸는 청년들과의 만남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싶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교감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길 바란다.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되지만 다른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러 이곳에 온만큼 다시 나를 다잡아봐야겠다.

3월 한달 간 Salapingao에서 무엇을 했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사실 한참을 망설일 것 같다. 지역 학교들의 방학으로 한 주간 활동을 하지 못해서 일까 내가 아직 Salapingao 애정을 갖지 못한 걸까. 아직까진 Salapingao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딱히 기억에 남는 추억도 없다. 하지만 4월에는 계획대로 지역 청년들과의 다양한 활동이 예정 되어있어 3월 보다는 좀 더 Salapingao에 애정을 쏟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아직 까진 그들과 만나 나눌 이야기와 활동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만, 벌써부터 그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설렌다.







2015.03 in SALAPINGAO





2015.03 in SALAPINGAO



## ACTIVITY SITE

# PUGARO 푸가로



Fish market 에서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보트 타기를 15분. 각자의 상념에 빠져 멍하니 시원한 물에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어느새 Dagupan City 의 작은 어촌 마을 Pugaro에 닿을 수 있다.

마을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받으며, 마을로 가는 좁은 길을 따라 가면 만날 수 있는 식료품점의 소녀를 시작으로, Pugaro란 마을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씩 드러낸다.

탄성을 자아내는 시원한 바다와 아기자기하게 늘어선 집들. 그 사이로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 학생들 그리고 어색한 이방인들의 "Maganda Umaga Po"를 친절하게 받아 주시는 어르신들까지 지역 주민들의 모습은 무척 정겹다.

섬마을의 특성상 Pugaro는 쓰레기처리, 빈곤, 수질오염 등 많은 곤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의 순수하고 빛나는 눈은 삶의 터전인 Pugaro의 아름다움을 담기에 충분하다.



지난 기수의 그린하우스를 보고 난 후 13기 단원들은 3월 한달 간 푸가로에서 그린하우스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긴 회의 끝에 전 기수들의 프로젝트를 이어 받아 그린 하우스를 진행 하 돼, 지역 주민들의 활동을 고취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현재 그린 하우스에 쓰일 모종들을 나누어주며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활동을 고취시킬 계획을 짜고 있으며, Pugaro의 지역주민들과 좀 더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기가 진행해오던 장소와는 다르게 관리하기에 용이한 Intergrated School에서 그린하우스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현실적으로 가능 할만한 크기의 땅을 찾아 4월에 본격적으로 그린하우스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 푸가로 - 개인소감



이곳은 다른 사이트보다도 더욱 정보를 알지 못한다.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아직은 내가 왜 이곳을 가야하는지.. 그리고 왜 가고싶은지.. 그걸 찾고 싶다.

지역주민들을 Greenhouse 프로젝트에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컸던 3월 이었다. Pugaro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고민 했던지..언젠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3~4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도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는 화가 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Pugaro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생각하면 언제나 웃음이 지어진다.



## 푸가로 - 개인소감



나는 지난 한 달의 푸가로는 제자리걸음이라 생각한다.  
팀원들과 계획을 하고 푸가로에 갔지만 가는 길이 가볍지 않은 발걸음.  
팀원들과 함께 푸가로 마을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푸가로의 그림은 청년들과 공감하고 함께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알아가는 것.

푸가로에서의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을 한국에서부터 관심을 가졌던 그린하우스를 하고 싶었다. 전기수분들의 그린하우스는 조금은 예상했지만 전혀 관리되지 않고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으로 변해버린 모습과 바다와 바로 맞닿아 있는 섬의 토양, 강한 햇빛 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그린하우스도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을 지라고 무모한 도전을 하고 싶었다.

이번의 그린하우스는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주었고 Intergrated school안에 그린하우스를 하게 됐다. 학교 안의 환경은 좋았고 이미 학교 안에 많은 작물들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무모한 도전이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하우스를 이용해 푸가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무한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푸가로는 아이들보다 청년들이 더 많아 보였고, 일상 속의 푸가로가 궁금했다. 혼자 발이 이끄는 대로 푸가로를 둘러보며 사람들을 만났다. 수줍은 아이들과 무관심해 보이는 청년들, 어른들. 다른 활동지와 다르게 사람들의 참여도가 적다는 코디의 말을 먼저 들어서 더 그렇게 보였던 것일까?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려울 거라는 말에 괜히 더 푸가로에서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2015.03 in PUGARO





2015.03 in PUGARO



ACTIVITY SITE

# DUMPSITE 덤프사이트



Dumpsite 는 Dagupan city에서 배출된 모든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장소이다. 덤프사이트 마을에 33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주민들과 친해지는 단계였고, 팀원들과 함께 덤프사이트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4월부터 시작될 아띠클라세, house to house, potluck party 등 이 곳에서 팡팀의 이야기가 그들과 함께 시작된다.





## 덤프사이트 - 개인소감 Santiato



Dumpsite 첫인상은 아주 솔직하게, 내가본 사람들이 사는 최악의 장소였다. 아이들의 빛나는 눈빛 보다 한줌 재로 타고 있는 쓰레기가 먼저 보였고 밥을 짓는 고소한 냄새보다 자욱한 스모그 냄새에 인상이 절로 찌푸려졌다.

하지만 방문이 계속될수록 Dumpsite의 가혹한 환경보다, 두 눈 가득 빛을 담고 있는 아이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다.

벌써부터 그들에게 정이 간다.





## 덤프사이트 - 개인소감 Conchita

덤프사이트를 가기 전까지 덤프사이트라는 이름은 나에게도 너무나 익숙했다. 안양에서 십시일반프로젝트와 전기수분들의 이야기로 덤프사이트라는 곳의 대략적인 상황을 알게 됐고, 덤프사이트라는 단어를 많이 말도 하면서 이미 내게 익숙한 활동지같았다. 하지만 실제로 가본 덤프사이트는 너무나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곳이었다.

처음 덤프사이트에 도착해 방명록을 작성하는 곳으로 걸어가며 저기 스모그로 가득 찬 곳을 가리키고 정말 스모그가 심하고 산발적으로 불이 나고 있고 정말 안좋아 보인다고 롤리에게 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곳에 들어가게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 스모그로 가득 찬 곳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사람들보다 그곳의 환경적인 모습이 더 눈에 들어왔다. 가끔 숨쉬기가 힘들기도 할 정도로 많은 가스들이 나오고 걸어 다니는 모든 곳은 비닐종류의 쓰레기로 가득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적인 것에 무덤해진 것인지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봤다. 덤프사이트를 보며 우리가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들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도 했고, 플라스틱 같은 화학중합물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그 동안 필리핀에서 생활하며 한국과는 다르게 많은 세제나 샴푸 등이 일회용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장을 볼 때마다 한 가득 가져오는 비닐봉지들도 떠올랐다. 덤프사이트의 첫 방문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었다.

점차 덤프사이트를 가며 환경보다는 사람들에게 눈이 갔다. 첫 날부터 덤프사이트를 갈 때 아이들에게 선물 아닌 선물을 계속 받으며 많은 관심을 주는 것에 정말 고맙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과 표정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다가와주던 아이들, 쑥스러워 다가오지 않던 아이들도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같이 뛰어 놀고, 나에게 달려와 안기는 것에 정말 벅차게 기뻐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 청년들과도 따갈로그어로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질문들로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며 다가갈 수 있어 좋았고 먼저 더욱 친근하게 해주시던 모습과 오로라와 닮았다며 더 정겹게 해주시던 것들에 더욱 감사했다. 덤프사이트에서의 3월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져 가고 덤프사이트라는 환경에도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 같다. 나를 온전히 좋아해준다는 이 느낌이 이곳에서 진심을 다하게 만들어 주는 거 같다. 나에게 덤프사이트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걱정부터 하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을 가르쳐준 시간이 되었다.





## 덤프사이트 - 개인소감 Juan



필리핀에 오기 전 이 필리핀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다. 우리가 덤프사이트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두려웠다. 덤프사이트 사람들과 만났을 땐 과연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물러나서 그들을 바라봤다. 친구보단 방문객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4월이 되었을 땐.. 그리고 3개월 뒤엔 그들과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





## 덤프사이트 - 개인소감 Juana



덤프사이트를 보았던 첫 순간 나의 시선은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을 했다.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듣고 와서 그런지 내가 보는 시선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이 분명하지만 그들이 행복하게 웃고 밥을 먹고 씻고 자고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었다. 매주 2번씩 방문하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걸까.

흰옷이 더러워짐을 걱정하며 괜찮냐며 걱정해주는 아이, 자신의 손이 더럽다며 악수를 거절하는 청년, 반겨주고 안아주는 사람들, 만날 때 마다 선물을 주는 아이.

나는 그들이 점점 더 궁금해졌고 주민들과 만남이 늘어나면서 안보이던 사소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주민들과 첫 만남 때 그토록 되고 싶었던 친구.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자연스레 Juana(우아나)를 외치며 자연스레 등에 업히고 손을 잡고 마주할 때에 나의 마음에 별빛이 내린다. 내가 바라보는 밤하늘에서 내리는 별처럼. 요즘 동네 언니. 동네 누나. 편한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과정이라 한없이 행복하다

첫 만남. 두 번째 만남과는 다르게 아프다고 말하는 아이보다 손을 잡고 같이 놀자고 하는 아이들. 어쩌면 아픈 곳을 봐달라는 것이 아닌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일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보고싶은 것만 보는 내가 되지않길.

내 발길이 원하는 길로만 가지않길.





2015.03 in DUMPSITE





2015.03 in DUMP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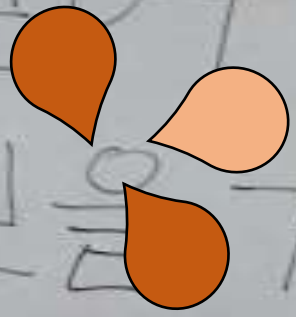


사랑해(요)

보고싶어

보고싶은거야

우리 학동





## OUR ACTIVITY

# ENGLISH CLASS and TAGALOG CLASS

---

**영어 수업**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로 계획되었고, 영어선생님으로는 마미줄리였으나 3월달 내내 바쁘신 관계로 코디네이터인 롤리가 우리의 영어 선생님이 되어 영어 수업을 진행했다.

영어 수업은 처음에 주어, 동사, 그리고 품사들에 관해 공부했으며 주로 영어 문법에 초점을 맞추었고, 점차 수업이 진행되어 가면서 문법에서부터 발음연습, 문장을 만들어 말하는 연습을 해보았다.

**따갈로그 수업**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로 계획되었고, 3월달 따갈로그수업은 코디네이터인 롤리가 진행했다.

따갈로그의 첫 수업은 따갈로그의 알파벳으로 OLD 알파벳과 NEW 알파벳 공부, 간단한 문장구조를 공부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숫자 및 시간, 신체단어 공부를 하며 간단한 문장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3월 달에 배운 단어 및 알파벳 등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OUR ACTIVITY

# KOREAN CLASS



#첫 주차 한국어수업

앞으로 매주 토요일 팡가시난 YMCA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게 되었다.

첫 한국어 수업은 영어의 알파벳부터 배우듯이 한글 기초부터 자음공부시작.

수업에 늦게 참여해 이해하지 못한 에몽과 초코를 위해서 남아서 다시 스테디!



## OUR ACTIVITY

# KOREAN CLASS

---



### #2 주차 한국어수업

유동적인 학생들로 인해 자음 다음으로 모음을 가르치려던 계획을 수정해 자기소개 및 학생들이 원하는 문장위주로 수업을 진행.

감사표현, 인사, 사과표현, 예쁘다, 멋있다 등 간단한 문장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CHAMPION  
(College-Y Club)

우리생활관





우리생활

# cooking food



#3월 필리핀음식을 알아가다!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한 필리핀!. 우리들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먹고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 팡가시난 ymca 코디들과 함께 3월 한달 동안 필리핀 요리법, 마켓에서 식재료 사는 방법을 배웠다. 한국에서 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코디들과 함께 식사도 매일하는 우리 13기 팡가시난팀! 4월은 13기 아띠들끼리 마켓에서 식재료를 구입하고 음식을 하게 된다.



우리생활

# Zumba dance

---



#3월 HI Zumba ?

팡가시난 ymca에서는 주기적으로 줌바댄스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다. 우리 13기 팡가시난팀도 함께 즐길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생각보다 운동도 되고 신나게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다. 역시. 필리핀 친구들의 춤솜씨는...!!



우리생활

# swimming activity

---



## #3월 Swimming activity

팡가시난 ymca에는 수영장이 있다. 수영장에  
는 swimming lesson도 진행되고 있다. 13기  
팡가시난 팀도 사용할수 있는 시간이 많아 3  
월에 2,3번 정도 이용했다. 팡가시난의 더위를  
날려버릴 ! 팡가시난 swimming pool .

# Month Thema

---



## #3월 month thema

3월 초 평가시난에 오기 전 우리팀은 우리들의 규칙, 그리고 역할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우리끼리 특별한 'month thema'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각자 3월부터 6월까지 한 명씩 돌아가며 팀원들끼리 하고 싶은 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3월은 13기 채지원 단원이 서로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쓰기를 진행했다. 다음 4월은 13기 임수정 단원이 진행하게 된다.



우리생활

# Atti tou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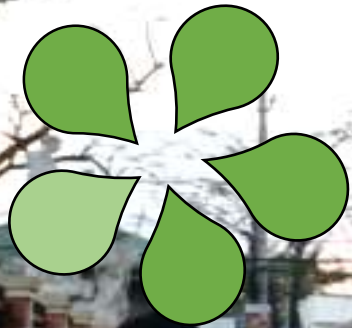


#3월

3월 5일.마음에 준비가 되기도 전에 도착한 필리핀...그리고 마닐라. 활동보다는 투어를 시작으로 필리핀의 활동이 시작된다. 마닐라에서 인트라무스 등을 경험하며 마닐라의 역사와 환경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닐라를 지나 약 5시간 도착한 팡가시난! 이곳에서도 역시 마켓,캐피탈 등 투어를 하며 팡가시난의 역사와 환경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STATION







ESSAY - SANTIAGO

## ESSAY

# SANTIAGO

---

아침 식탁에 올라온 따끈한 반딧살이 식어가는 시간만큼, 깨끗하게 빨아놓은 티셔츠가 강렬한 필리핀의 태양에 마르는 시간만큼 필리핀의 첫 달은 나에게 빠르고 실 새 없이 흘러갔다.

3월 한 달간 다른 언어, 문화를 가진 수많은 사람과 소통하며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 등이 나의 마음을 빠르게 들쭉시키고 나갔다.

사람들 때문에 행복했고 화가 나기도 했으며, 그들에게 실망하기도, 그들에게 고맙기도 또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 상태에 지쳐버리기도 하였다.

이런 일시적인 감정들 속에 3월의 마지막 보고서를 쓰게 된 지금. 그때그때 머리에 떠오르던, “이런 감정을 보고서에 꼭 써야겠어!” 혹은 “이 감정은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 했던 감정들은 이미 변해 버렸거나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

이런 저런 잡념. 깊이 않은 고민 끝에 나는 결심했다. 지금 내 안에 흘러 버리는 감정들을 그저 놓아주기로. 순간의 감정, 금방 없어져 버릴 무엇인가에 매달려 지금의 순간 내 앞에 놓여있는 사람과, 뜨거운 감정들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로.





# ESSAY – JUAN

## ESSAY

# JUAN

---

3월 초 나는 필리핀에서 활동 속에 나를 '주인공' 으로 상상했었다.  
오직 필리핀 활동에 나만을 그려왔던 것 같다. 하지만 내 옆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겐 나는 '조연' 일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멋진 '조연' 으로 활동을 마무리 하고 싶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도 내 가족, 친구 등 내 주변사람들에게 멋진 '조연' 으로 살아가고 싶다.





# ESSAY - CONCHITA(SITA)



## ESSAY

# CONCHITA

---

필리핀에 도착해서 아직까지도 설렘을 가지고 이곳에서 살아간다.

필리핀에 가게 되면서 가장 크게 걱정됐던 건 언어였다. 차라리 다같이 새롭게 언어를 배우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다. 영어 울렁증이 한국에서도 있는 내게 필리핀은 나에게 부담이었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영어는 내게 가장 무거운 짐이고 나를 화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점차 영어와도 친해지는 것 같다.

필리핀에 오기 전 언어에 대한 걱정을 하는 내게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질거야" 라는 말을 해주었다.

언제나 영어는 내게 소통하는 언어가 아닌 그저 시험지에 있는 영어일뿐이었는데

당연한 말이었지만 나에게 가장 인상에 남은 말로 기억되었고, 이곳에서 절실하게 매일 매일 느끼며 이야기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가기 시작했다.

필리핀에 오면서 언어 때문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될까봐

스스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방법으로 같이 사진찍는 방법을 정해 먼저 다가가도록 노력했다.

생각보다 용기도 필요했고 사진을 찍고 나서 더욱 편해지는 것만 같았다.



필리핀에 오기 전부터 내가 고민하고자 하던 나의 고민들은 이곳의 새로운 고민들로 묻혀가고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본적이 없었던 것 같다.

라운아피를 하게 되면서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해봤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저 회피하고 생각하기를 피하지 않았나 싶다.

이곳에서의 만남과 관계 맺음은 내가 회피할 수 없는 관계들인 것 같아 나를 더욱 관계에 대해 집중시키고 고민하게 한다.

지금 이곳에서의 나의 모습이 한국에서의 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곤 나를 즐겁게도 좌절시키게도 하며 나를 바라보게 만든다. 간혹 언어적인 문제로 새로운 관계의 고민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노력하고 꾸밈없는 나의 모습을 점차 찾아가는 것 같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언제나 새로운 것들의 연속이고 도전이다.

아직까지도 필리핀의 더위도 매번 새로움의 연속이지만 이 또한 언젠가는 익숙해지겠지.

A group of approximately ten children and one woman are gathered outdoors, smiling and waving at the camera. The woman, wearing a brown hat and a dark top, is positioned at the top center. The children are dressed in casual clothing like tank tops and shorts.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concrete structure with a blue and yellow border, possibly a pool or a play area. The scene is brightly lit, suggesting a sunny day.

ESSAY – JUANA



## ESSAY

# JUANA

---

참고: 20세(한국나이22세) 소녀 채지원의 별명은 채리수(무리수)=채오글

주요: 감상주의

낭만주의자 a romantic

#매일 밤 나만의 밤하늘을 보면서 어제의, 그리고 오늘의 내가 인사한다.

괜찮아. 괜찮다고,

-3월 2015년 필리핀 팡가시난의 밤하늘을 보며 생각을 해본다

이곳은 별빛이 참으로 밝고 아름답다지.

마음이 쉽게 지쳤던 한국에서의 내 모습

: 물먹은 수수깡처럼 축축 부러지는 힘없는 감정싸움과 나 스스로와의 싸움에 손아귀에

힘이 빠져 모든 것이 무거울 때. 문제가 밖에서 오는지 안에서 오는지 헛갈릴 때.

밀도 끝도 없이 쓸데없는 빈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며 스스로를 쓰러뜨릴까

밖이 아니라 안이, 몸이 아니라 맘이, 어쩌면 다 두려워서..

어쩌면 모든게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 못해서였을까.

안이 너무나 약했던 나.

-같은 햇살 같은 시간 속. 같은 공기 속에서 느끼는 또 다른 세상  
나만의 밤하늘을 보며 필리핀에 물들어가다  
아침6시.

요란한 소리에 일어나서 즐겁게 부은 눈으로 쪽쪽 스트레칭을 켜다.  
왠지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경쾌하고 풀밭도 새파랗게 새초롬초롬 느껴지는게.  
안들리는 배경음악이라도 어디선가 졸졸 흐르는 기분이다

요즘 마냥 행복하다

불쑥 불쑥 그냥 베시시 웃기도 하고 그냥 사소한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고

내가 가진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내가 사랑하는 일들을 자유롭게, 정말 즐기며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일시적인게 아니라 요즘 내가, 내 주변과, 내 일상과 내가 하는 것들이 모두 사랑스럽다

요즘 행복하다는 쉽게 말한다 행복이 이렇게 간단할줄이야.

나는 이렇게 행복을 배우고있다 행복을 마주하며.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야! 라온아띠 13기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지?

3월 2015년 너에게도 행복이 마주했길

4월도 행복이 마주하길.

우리 팡가시난YMCA 가족. 우리 팡팀 짠. 콘치타. 산차고. 그리고 나, 사랑해!

모든 것이

*That's Okay*

#나는 바래본다

필리핀 5개월이 지나고 나만의 밤하늘을 보면서 어제의, 그리고 오늘의 내가 인사한다.

괜찮아. 괜찮다고

괜찮았다고.

# **바나나 - 채지원**

**바나나홀릭**

**바나나에 반하다**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반하나?**

**바나나 반하다**

**바나나 너 이럴래?**

**너에게 반했어 바나나**

**바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를 봐**

**나는 바나나에 빠졌어**

**내 머리는 그게 아닌데**

**내 손은 이미 너에게로.**

**바나나가 눈앞에 있긴했어?**

**눈 한번 깜빡이면 바나나는 입속으로.**

**깊은 흔적으로 남은 바나나**

**내 몸 깊이 자리잡은 바나나**

**너와 나는 오늘부터 1일이야**

**너 이럴래.**

**너가 이러면 난 더 니가 좋은데.**



# RAONATI I

JUAN TIAGO SITA JUANA



SALAMAT PO ♡







